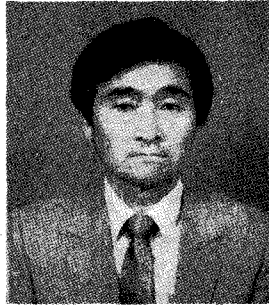


유감삼제 (遺憾三題)



조 홍 원

본회 부회장

1. 매초(Ensilage)

이는 낙농인에게 애환이 서린 단어다. 담그자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안 담그자니 섭섭하고 아쉬운 일이다.

목장 26년 스물다섯번째 매초작업을 하며 입에 신물이 날 정도로 실증을 냈다.

밭 작두로 옥수수를 썰어 매초작업을 하던 때로부터 카터기, 카터기에서 하베스토어로 발달된 기계의 혜택으로 작업자체는 한결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엔실레지 작업은 힘들고 고된작업이다. 기계의 고장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수삼일씩 작업이 연기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노심초사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가 갈수록 엔실레지 작업에 대한 두려움은 더해가는 것 같다.

반백의 나이에 목장일에 대한 정열이 식은 것일까?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살인적인 더위속에 엔실레지 작업을 하느라 하도 혼이 나서 올해는 이에 더위가 한 풀 꺾이는 8월 20일부터 작업을 하기로 작정하고 5일 밖에 얻을 수 없다는 큰 아들의 휴가를 3일간 할애하기로 어렵사리 짜위를 달포전부터 해놓고는 올해는 엔실레지 작업을 좀더 수월하게 마칠 수 있으리란 기

대에 흐뭇해 했었다.

7월 한달 내내 지루하게 내린 장마로 평탄하지 못한 밭 중간 중간, 물고이는 부분의 옥수수가 누렇게 죽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엔실레지 작업을 해치워야지 하고 조바심 하면서도 건장한 아들의 조력을 받아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8월 20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4월 15일 경에 파종한 옥수수는 이미 황숙기를 지나 고숙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옛날에 난리가 날것이라는 소문에 소를 잡아 먹은 농부가 난리가 나지않자 “내복에 무슨 난리!” 했었던가.

8월 19일 비가 내렸다. 부랴 부랴 큰아들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20일부터의 휴가를 23일로 연기해 보라고 부탁을 했다. 23일 또 폭우가 오기 시작했다. 웬간히 날이 꺾어도 작업을 강행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수령이 되어 버린 밭은 좀처럼 말라서 작업을 할 것 같지 않다.

“게도 구력도 농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보다. 큰녀석 휴가는 휴가대로 허송세월하고 둘째 녀석은 개강한다고 가버리고 밭의 옥수수는 이미 고숙기



“

적어도 축산 전문지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열악한 한국 축산의 여건하에서 건전한 여론을 선도하고 올곧은 논조로 한국축산의 국제경쟁력 배양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이었다. 교언영색으로 축산인을 이간하는 것은 축산인론의 정도가 아니다. 아무리 우리의 여건속에서 먹이사슬을 뻗어낼 수 없는 아픔이 있음을 이해하더라도 남득할 수 없다.

”

를 넘어 누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유감이다. 하늘이여 유감이다.

엄청난 수해를 입은 충남지역 농민에 비하면 우리의 피해는 조족지혈에 불과하지만 여하튼 하늘이여 유감이다. 푹푹 빠지는 밭에서 하베스토어 끌고가는 트랙터를 다른 트랙터로 밀어가며 누렇게 말라 죽은 옥수수를 마치못해 수확하자니 코에서 단내가 난다.

숯덩이 마음으로는 연신 “하늘도 무심하지”를 노래하며 올 8월은 처절하게 지나갔다.

2. 항의방문

누구의 발상인지 시위를 항의방문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은 탁견이다. 지난 8월 24일 장대비속에 전국 각처에서 2천여명의 낙농가가 축협중앙회를 항의 방문하였다. 혹자는 중앙회 15년사에 처음 있는 일로 매우 특이하고 쇼킹(shocking)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축산인의 정서가 외면당한 누적된 실망, 낙농인의 이익에 상반되는 중앙회의 처사와 조치들, 원유대 인상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원유생산비 조사를 발표한 오류에 대한 불만이 겹친 필연적인 인과응보였다.

대중의 집회였기에 큰 불상사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낙농인들의 의식이 한결 성숙한 결과이리라.

그러나 진정한 축산인으로 존경받는 백발 성성한 중앙회장이 곤혹스런 처지에서 수모를 겪은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더구나 축협인으로 반평생을 봉직한 몇사람이 파격적인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은 대중집회의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이해하기엔 너무나 유감스런 일이다. 가슴아픈 일이다.

사견이지만 나는 그날 항의방문이 우리의 권익을 외면해 온 중앙회가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시키는데 앞장서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유대인상 문제나 낙농진흥법 개정문제에 있어 중앙회가 과거 거의 수수방관하던 입장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선두에 서서 정부에 건의하고 호소하고 채근하는 “우리의 중앙회”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했고 중앙회가 자발적으로 솔선함으로써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지 몇사람의 축협 직원을 인간적으로 곤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것은 진정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 슬픈일이다.

행사가 끝난 뒤 축산전문지의 사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신문 8월 28일자 사설은 “…… 특정인들의 인기 영합이나 이해득실로……”라고 쓰고 있다.

이른바 양비론이다.

이나라 중요 정치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언론에

서 눈이 시도록 귀 따갑게 들어온 양비론이다.

우리 언론의 양비론이야 우리나라 언론의 태생적 한계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으나 이 신문도 우리 언론의 풍토 속에서 탄생하고 길들여져 이런식의 논조를 펴는 것인가?

적어도 축산 전문지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열악한 한국 축산의 여건하에서 건전한 여론을 선도하고 올바른 논조로 한국축산의 국제경쟁력 배양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이었다. 교언영색으로 축산인을 이간하는 것은 축산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아무리 우리의 여건속에서 먹이사슬을 받아낼 수 없는 아픔이 있음을 이해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가증스런 일이다.

이번 행사가 특정인들의 인기영합을 위한 행사였다면 폭우속에 전국 도처에서 운집한 2천여 낙농인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꼭두각시란 말인가? 지나치게 낙농인을 우롱하는 언사다. 그 신문의 말대로 특정인들이 인기영합을 위해 전국에서 2천여명을 동원했다면 그 특정인들은 전국적으로 꽤나 인기있는 인사들이다. 특정인이 보통의 인기로는 단기간 내에 그것도 전국에 걸쳐 2천여명을 동원하기란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특정인들은 인기영합을 할 필요가 없다. 전국에 걸쳐 꽤나 인기있는 인사가 무엇때문에 구태여 인기영합을하려 한단 말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신문의 화보다. 신문 한면의 반이상에 걸쳐 실린 화보는 모 모 인사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친절한 해설문을 실었다. 마치 전면광고 지면이나 개인 P.R지를 읽은 기분이다.

특정인의 인기영합이나 이해득실을 우려하고 준엄하게 사설로 꾸짖은 신문이 개인 PR지 수준으로 전락하다니 앞뒤가 안맞는 언설이요. 비열한 느낌이 든다.

유감스런 일이다.

가소로운 일이다.

3. 풍문

나는 이 단어를 바람에 흘러다니는 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때 유행했던 “유비통신”이란 것도 이

풍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유비 통신이 뒷날보면 진정 유언비어가 아닌 상당히 정통한 소식으로 추인받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풍문도 전혀 뜬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어언 2년반.

개정안 마련시 적잖은 이견도 있었으나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낙농가들의 지지와 기대속에 국회상정은 되었으나 2년반 동안 국회에서 낫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극히 일부지역 집유조합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번 유대인상에 우유의 질에대한 가격차등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낙농가들의 검사 공영화에 대한 바램은 그 어느때 보다 간절한 것이어서 낙진법의 개정은 낙농문제에 있어 가장 절박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낙농가들의 바램과 정부의 의지가 맞아 떨어져 금년 정기국회에서 낙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줄기찬 노력의 결과 당정 협의회에서 낙진법 개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풍문에 의하면 여당의 한 실력자가 다음 선거에서의 이해관계에 의한 개정불가 호소가 주요하여 낙진법 개정이 또 다시 난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민정부에서 이 무슨 청천벽력의 소리인가? 문민정부, 문민정부, 문민정부, 지난 2년 반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일반화된 말이다. 문민정부란 무엇인가? 민초들의 여론이 절대적으로 존중되고 수렴되는 정부가 아닌가?

전국 2만 2천여 낙농가의 절대적인 소망이 극히 일부 집유조합들의 수역원에 달하는 우유판매 선도금 반환이라는 불이익 때문에 좌초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낙농인이 이익이 한 정치인의 이익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문민정부 시대가 아닌가? 10년전 20년전 독재정권 시절이 아니잖는가?

풍문은 어디까지나 풍문이긴 하지만 유감스런 일이다.

통탄할 일이다.

풍문이 뜬 소문. 헛 소문이길 간절히 기원한다. 하루빨리 낙진법이 개정되어 어두운 실의속에 방황하는 낙농인들에게 한가닥 햇살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